

■ 오늘 '스승의 날'... 이런 사제지간도 있다



14일 이병철(왼쪽)씨가 백발의 제자 윤갑섭씨와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올해도 90세 스승 찾은 79살 제자

윤갑섭 할아버지 초등학교 은사 이병철씨와 32년째 만남 이어가

최근 사제지간에 폭력까지 발생해 눈살을 짜푸리게 하지만 60년 동안이나 사방으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노승과 백발의 제자가 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현대노인전문병원에서 백발이 성성한 두 노인이 손을 잡아끌고 눈물을 흘렸다.

스승과 제자 사이인 이들은 이병철(90)씨와 윤갑섭(79)씨. 이들의 인연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인 지난 1948년 이씨가 당시 화순군 청풍국민학교에 부임하면서 시작됐다.

교정에서 만난 26살의 젊은 선생님과 꿈 많은 소년이 지금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

긴 세월동안 사제가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제자인 윤씨가 함께 가르침을 받았던 양래승(79)·박해동(78)씨와 함께 32년 전부터 해마다 스승의 날에 맞춰 이씨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다른 두 제자는 세월을 이기지 못하면서 불편한 몸 때문에 발걸음을 하지 못했다.

이씨는 제자 윤씨를 자기 주장이 확실했고 글씨를 잘 쓰는 학생으로 기억했다. 윤씨의 기억 속에서도 이씨는 항상 '발전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던 자상한 선생님으로 남아 있었다.

윤씨는 "1년 만에 찾아왔는데, 아흔의 선생님이 눈을 마주치자마자 '너 갑섭이 아니냐, 어찌 왔느냐'라고 반가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며 "지난해보다 건강해진 모습을 뵈니 마음이 놓인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씨도 "매년 잊지 않고 찾아와주는 제자들이 고마울 때이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교사들 "교직 만족도·사기 떨어졌다"

교총 설문..."학생 생활지도 어려움" 고충 토로

교사들은 자신과 동료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 및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스승의 날 맞아 이달 9~12일 전국 교원 3271명에게 온라인으로 교원인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사 자신이나 동료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 및 사기가 최근 1~2년간 어떻게 변화했느냐'는 질문에 81%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총은 교사들이 같은 질문에 2009년에는 55.3%, 2010년 63.4%, 2011년 79.5%가 '떨어졌다'고 답한데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 교직 만족도 및 사기가 추락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교직만족도가 낮아지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로는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든 비율이 29.8%로 가장 높았다. 다음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의 태도'(22.6%), '교직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21.1%), '학생교과지도 및 임무의 어려움'(14.0%) 순이었다.

교사 자신의 교직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46.7%가 '대체로 만족한다', 9.6%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해

과반이 만족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 25.7%,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15.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9%였다.

자신의 자녀가 교사의 길을 선택할 경우 '자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응답이 57.6%로 절반을 넘은 가운데 '찬성하다'는 응답비율은 23.9%로 작년 조사 때의 28.8%보다 하락했다.

새로 태어나도 다시 교직을 택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36.7%)와 '그렇지 않다'(36.4%)의 응답비율이 팽팽했다.

최근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이 94.9%로 압도적이었고, 교육환경 변화로는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원주탁 현상'을 꼽은 비율이 70.7%로 가장 높았다.

한편 교사들은 스승의 날에 '제자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로는 '선생님 존경합니다'(28.2%),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26.8%), '선생님이 계셔 행복해요'(26.8%)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

광주교육감 "최선 다하는 교사되자"

스승의날 맞아 서한

장희국 광주시교육감은 14일 스승의 날(15일) 맞아 교사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교사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교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교를 인권친화적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이 이전보다 투명해지고 깨끗해졌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장 교육감은 이어 "힘들고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의 얼굴에 기쁨과 웃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롭 05시 29분 해진 19시 29분

달롭 02시 02분 달진 14시 24분

오후에 비 그쳐요

흐리고 새벽 한때 비가 온 후 점차 개겠다.

광주	구름많음	15/23°C
목포	구름많음	14/20°C
여수	흐리고 한때 비	16/22°C
나주	구름많음	14/24°C
완도	흐리고 한때 비	16/22°C
구례	구름많음	15/23°C
강진	흐리고 한때 비	16/22°C
해남	흐리고 한때 비	16/21°C
장흥	구름많음	16/22°C
순천	흐리고 한때 비	15/23°C
영광	구름많음	15/20°C
진도	흐리고 한때 비	15/21°C
전주	흐림	15/23°C
군산	흐림	14/20°C
남원	흐리고 한때 비	15/22°C
흑산도	구름많음	12/18°C

〈오전〉 비다	풍향	파고	식중독자수
서해 남부 일비다	북서~북	0.5~1.5m 1.0~2.0m	주의 보통 보통
남해 서부 일비다	북~북동	1.5~2.5m 2.0~3.0m	

〈오후〉 비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일비다	서~북서	0.5~1.5m 1.0~2.0m	목포 10:01 03:02
남해 서부 일비다	서~북서	0.5~1.5m 1.0~2.0m	여수 05:16 11:31

◇주간날씨

날짜	16(수)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날씨	13/24	14/24	13/27	13/27	15/24	15/26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광주 경찰 "5·18경비 유연하게"

경비경찰 축소·질서유지 요원만 배치

광주경찰은 제32주년 5·18 기념행사의 주제로 분위기에 맞춰 경비경찰을 큰 폭으로 축소하고,

사복·교통경찰 위주로 배치하는 등 유연하게 관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은 18일 기념식 행사에 대비경력을 대폭 줄이는 한편 행사를 통해 기금을 조성, 5·18 행사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명리조트 DAEMYUNG RESORT

DAEMYUNG RESORT NEWS



골프, 스키, 오션월드, 리조트를 회원권 하나로! 대명리조트 특별분양 "지금이 절호의 구입기회!"

엠블호텔 여수 개관기념 특별분양!



대명리조트 1위인 대명리조트가 창립 33주년 및 2012년 3월 엠블호텔 여수 개관을 기념해 오너십 정회원권을 특별 한정 판매이다. 출시한 특별상품은 정상

• 국내 최대규모 7,757실 · 전국 12개지역 직영 체인망 · 국제 수준의 사계절 리조트 [비발디파크]

대명리조트 설악 · 대명리조트 경주 · 대명리조트 단양 · 대명리조트 양평 · 쿨비치 호텔&리조트 · 대명리조트 제주 · 대명리조트 벤산 · 비발디파크 오크동, 파인동, 메이플동, 체리동, 노블리안동, 유스호스텔 · 비발디파크 스키월드 · 비발디파크 컨트리클럽 ·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 스노밸리제

파밀리/스위트 납입계좌 : ▶우리은행 1005-900-997807 ▶신한은행 295-05-061967 | 노블리안 납입계좌 : ▶신한은행 140-008-634503 | 예금주 : (주)대명리조트

회원가입문의

062)380-0725

지정계좌로 입금된 입회금만 유효합니다.



운전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깨끗한 환경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아간반, 주말반 운영
- 교재무료 배부
- 셔틀버스 운행
- 2012년 7월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예정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주| 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 신가동 사거리 본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